

일부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연구 : 대구지역 중심으로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Dental Hygienist's Job Stress and Social Psychological Stress

이정화, 김지화
포항대학교 치위생과

Jung-Hwa Lee(leejh@pohang.ac.kr), Ji-Hwa Kim(dhwa@pohang.ac.kr)

요약

일부지역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근무특성, 직무스트레스, 사회심리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치과위생사 219명을 대상으로 최종분석결과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총점은 47.41 ± 7.46 이었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총점은 23.05 ± 7.49 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직위가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물리환경, 직무자율성, 보상부적절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았고, 수입, 학력이 낮을수록 직무경력기간이 짧을수록 직무자율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일평균근무시간이 길수록 물리환경,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직무불안정,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심리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급이 높을수록 물리환경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사회심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치과위생사 | 직무스트레스 | 사회심리 스트레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rasp the relationship among general characteristic, work characteristic, job stress and social psychological stress by targeting dental hygienists in a certain area. By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it was possible to get following results from 219 people. The total score of job stress of dental hygienist was 47.41 ± 7.46 . The people who are younger, take lower positions at their workplace and not married showed higher stress about physical environment, autonomous work and improper compensation. The people with lower income showed higher stress about autonomous work and the people with lower academic background showed higher stress about physical environment and autonomous work. The people who spend more time at their workplace showed higher stress about autonomous work and showed lower stress about relational conflict, organization system, improper compensation and work culture. The job stress about physical environment, job request, autonomous work, unstable work, improper compensation and workplace culture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psychological stress. It was found that unstable work, organization system, improper compensation and higher position gave effects to social psychological stress.

■ keyword : | Dental Hygienist | Job Stress | Social Psychological Stress |

I. 서론

현대인들은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생존경쟁적인 업무부담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과 연관시킬 만큼 스트레스의 개념은 중요하게 이해되고 있으며 직장인들의 건강문제에 있어서도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1].

한편 의료서비스의 한 영역을 담당하는 구강보건 분야는 과거에 비해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으며, 급격한 의료수요의 증가로 인한 과다한 업무량, 의료분쟁의 증가, 병원간의 경쟁심화 등은 의료 종사자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 시키고 있다[2]. 그 중에서도 치과 위생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업무량과 불분명한 업무의 분업화 등으로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3]. 직무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래팜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4]이라고 정의하며,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업무량, 부적절한 대우, 스트레스 증상이 낮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근로생활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5].

Stansfeld와 Candy[6]연구에 의하면 사회·심리적 환경과 정신건강간의 관련성에 있어 높은 직무긴장, 낮은 직무자율권, 낮은 사회적 지지, 높은 정신적 요구, 직무 불안정, 보상부적절 등이 정신 건강과 관련성이 있고, 특히 높은 직무긴장과 보상부적절이 정신건강과 강한 관련성이 있었다. 장세진 등[7]은 직무통제, 사회적 지지, 직무불안정 등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고, 직무요구는 여자 근로자에게만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Park 등[8]의 연구에서도 여자 근로자는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직장문화가 우울증과 관련성을 보였다. 이렇듯 스트레스는 근로자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또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으려는 연구들은 많지만 치과위생사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관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 근무특성 및 직무스트레스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치과 위생사의 건강증진과 업무의 효율성 및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인력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다.

II.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기간

연구대상은 2010년 2월 현재 대구·경북 치과위생사 협회에 근무처가 치과병원으로 등록된 치과위생사 320명 중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급 치과 의료기관의 치과위생사 219명을 대상으로 2010년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실시하였다.

2.2 조사방법 및 도구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치과위생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무관련 특성, 직무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평가는 장세진[9]에 의해 개발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기본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 43문항을 이용하였고 정규분포에 근사하는 측정값을 얻기 위해 8개 영역의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2)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Goldberg 와 Hillier[10]의 일반 건강측정표를 기초로 하여 2000년도에 우리나라 현실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Psychosocial well-being index, PWI)로 개발된 18문항을 이용하였다. 27점 이상은 고위험군, 9-26점은 잠재적 위험군, 8점 이하는 건강군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PWI의 Cronbach's α 값은 0.892이었다.

2.3 자료분석 방법

이 연구의 자료는 SPSS 1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t-검정, ANOVA를 이용하였고, 직무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관련성은 상관관계분석 및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성적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관련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0-24세 이하가 43.8%로 가장 많았고, 최종학력은 전문학사 84.0%, 결혼여부는 미혼이 84.9%, 월수입은 150만원 미만 46.1%로 조사되었다. 치과위생사로 직무기간경력은 72개월이상 28.8%, 12-35개월 26.0%, 36-71개월 25.6%순이었고, 직급은 일반치과위생사 82.2%, 관리급 치과위생사 17.8%였으며 일일근무시간은 8시간 이하 57.5%, 9시간 이상 42.5%로 나타났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관련특성

구분	구분	N(%)
연령	20-24세이하	96(43.8)
	25-29세이하	91(41.6)
	30세이상	32(14.6)
최종학력	전문학사	184(84.0)
	학사이상	35(16.0)
결혼상태	미혼	186(84.9)
	기혼	33(15.1)
월수입	150만원 미만	101(46.1)
	150-200만원 미만	79(36.1)
	200만원이상	39(17.8)
직무기간경력	0-11month	43(19.7)
	12-35	57(26.0)
	36-71	56(25.6)
	72≤	63(28.8)
직급	일반치과위생사	180(82.2)
	관리급치과위생사	39(17.8)
일일근무시간	8시간이하	126(57.5)
	9시간이상	93(42.5)

3.2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여자 기본형 상위 50%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환경 52.01±14.82, 직무요구 58.66±12.58, 직장문화

42.81±15.22로 평균 참고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총점 47.41±7.46로 참고치 51.2-56.6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 중 보상부적절 51.01±13.49, 직무불안정 41.78±12.03의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평균점수

직무스트레스	M±SD	percentiles			참고치*
		25	50	75	
물리환경	52.01±14.82	44.4	55.6	66.7	44.5-55.5
직무요구	58.66±12.58	50.0	58.3	66.7	54.2-62.5
직무자율	52.48±11.90	46.7	53.3	66.7	60.1-66.6
관계갈등	31.58±13.02	25.0	33.3	33.3	33.4-41.6
직무불안정	41.78±12.03	33.3	44.4	50.0	50.1-55.5
조직체계	48.95±13.45	38.1	47.6	57.1	52.4-61.9
보상부적절	51.01±13.49	44.4	50.0	61.1	66.7-77.7
직장문화	42.81±15.22	33.3	41.7	50.0	41.7-50.0
전체총점	47.41±7.46	42.1	46.3	52.4	51.2-56.6

*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기본형 참고치(상위 50%-여자용)을 기준으로 함.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관련 특성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군

연구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평균은 23.05±7.49점 이었다. 219명 중 27점 이상 고위험군 스트레스군은 32.9%, 9-26점의 잠재적 스트레스군은 65.3%, 8점 이하의 건강군은 1.8%에 불과했으며, 일반적 특성 및 근무관련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군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월수입이 낮을수록, 일일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사회심리스트레스의 고위험군의 비율은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표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관련 특성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특성	사회심리스트레스군			X ²	
	≤8	9-26	27≤		
연령	20-24	2(2.1)	56(58.3)	38(39.6)	0.313
	25-29	1(1.1)	63(69.2)	27(29.7)	
	30≤	1(3.1)	24(75.0)	7(21.9)	
월수입	< 150	2(2.0)	59(58.4)	40(39.6)	0.382
	150-200	1(1.3)	56(70.9)	22(27.8)	
	200<	1(2.6)	28(71.8)	10(25.6)	

최종학력	전문학사	4(2.2)	117(63.6)	63(34.2)	0.374			11.61		150-200	13.28			
	학사이상	0(0.0)	26(74.3)	9(25.7)										
결혼상태	미혼	3(1.6)	120(64.5)	63(33.9)	0.672	30≤	32	57.29± 17.58		200<	39	59.29± 14.06		
	기혼	1(3.0)	23(69.7)	9(27.3)										
직무경력	0-11	1(2.3)	23(53.5)	19(44.2)	0.201	20-24	96	54.79± 10.65		< 150	101	55.64± 10.13		
	12-35	2(3.5)	35(61.4)	20(35.1)										
	36-71	0(0.0)	44(78.6)	12(21.4)		직무 자율	25-29	91	52.82± 11.25	9.598**	150-200	79	50.89± 11.94	8.170**
	72≤	1(1.6)	41(65.1)	21(33.3)										
	일일근무 시간	≤8	3(2.4)	87(69.0)	36(28.6)	0.245	30≤	32	44.58± 14.11		200<	39	47.52± 13.86	
	9≤	1(1.1)	56(60.2)	36(38.7)		20-24	96	28.65± 13.67		< 150	101	29.13± 12.78		
Total		4(1.8)	143(65.3)	72(32.9)		관계 갈등	25-29	91	32.69± 11.47	6.060**	150-200	79	34.07± 11.87	3.522*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연령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연령이 낮을수록 물리환경, 직무자율, 보상부적절에 대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관계갈등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월수입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150만원 미만 즉, 수입이 낮을수록 직무자율에 대한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고, 관계갈등, 조직체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최종학력에 따른 물리환경, 직무자율 스트레스는 전문학사보다는 학사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낮게 나타나 유의하였고, 결혼 상태에 따른 물리환경, 직무자율, 보상부적절은 미혼일수록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보였고, 관계갈등에서는 기혼이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4].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정도

직무 스트 레스	연령	N	M±SD	F	월수입 (만원)	N	평균	F
	20-24	96	54.40± 13.14		< 150	101	53.58± 13.82	
물리 환경	25-29	91	53.24± 15.05	10.775**	150-200	79	51.90± 14.86	1.906
	30≤	32	41.31± 14.73		200<	39	48.15± 16.78	
직무 요구	20-24	96	58.42± 11.53	.357	< 150	101	58.05± 11.46	.223
	25-29	91	59.39±			79	59.12±	

	25-29	91	37.24± 13.22		200<	39	32.91± 14.93	
	20-24	96	40.05± 10.32		< 150	101	40.21± 10.04	
직무 불안 정	25-29	91	43.16± 13.53	1.790	150-200	79	42.76± 14.33	1.723
	30≤	32	43.06± 11.97		200<	39	43.87± 11.46	
	20-24	96	46.38± 11.97		< 150	101	45.59± 11.49	
조직 체계	25-29	91	52.80± 13.18	6.761**	150-200	79	53.04± 13.22	7.209**
	30≤	32	45.68± 15.95		200<	39	49.33± 16.33	
	20-24	96	52.26± 11.22		< 150	101	50.88± 11.54	
보상 부적 절	25-29	91	52.56± 14.61	7.215**	150-200	79	53.52± 14.32	3.849*
	30≤	32	42.88± 13.91		200<	39	46.30± 15.37	
	20-24	96	41.32± 12.38		< 150	101	40.43± 12.77	
직장 문화	25-29	91	42.95± 16.43	1.613	150-200	79	44.30± 17.48	2.472
	30≤	32	46.88± 18.78		200<	39	45.94± 15.63	

*p<0.05, **p<0.01

표 4. 계속

직무스트레스	학력	N	평균	T	결혼	N	평균	T
물리환경	전문 학사	184	53.26±14.51	8.572**	미혼	186	53.29±13.87	9.598**
	학사 이상	35	45.40±14.85		기혼	33	44.78±17.89	
직무 요구	전문 학사	184	58.92±12.01	.511	미혼	186	58.67±11.76	.001
	학사 이상	35	57.26±15.34		기혼	33	58.59±16.66	
직무 자율	전문 학사	184	53.66±11.73	11.856**	미혼	186	53.51±10.75	9.646**
	학사 이상	35	46.29±10.96		기혼	33	46.67±15.99	
관계 갈등	전문 학사	184	31.61±13.61	.006	미혼	186	30.73±12.88	5.341*
	학사 이상	35	31.43±9.50		기혼	33	36.36±12.98	
직무 불안정	전문 학사	184	42.18±11.59	1.268	미혼	186	41.73±12.24	.025
	학사 이상	35	39.68±14.14		기혼	33	42.09±10.94	
조직 체계	전문 학사	184	49.22±13.31	.491	미혼	186	49.16±12.91	.299
	학사 이상	35	47.48±14.31		기혼	33	47.76±16.34	
보상 부적절	전문 학사	184	51.69±13.59	2.919	미혼	186	51.82±12.79	4.494*
	학사 이상	35	47.46±12.52		기혼	33	46.46±16.36	
직장 문화	전문 학사	184	43.25±14.87	.977	미혼	186	42.61±14.76	.214
	학사 이상	35	40.48±17.05		기혼	33	43.94±17.83	

*p<0.05, **p<0.01

3.5 대상자의 근무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연구대상자의 근무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직무경력기간이 짧을수록 직무자율 스트레스는 높았고,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급에 따라서는 관리직보다 일반직 치과위생사가

물리환경, 직무자율, 보상부적절의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고, 일일 평균근무시간이 9시간 이상일수록 물리환경, 직무요구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하였다[표 5].

3.6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하부요인들과 사회심리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표 6]에서와 같다.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직무불안정,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심리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표 6].

3.7 대상자의 사회심리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요인

사회심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중 사회심리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고 최종학력, 직무경력, 직급,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에서 생기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사회심리 스트레스에 영향력이 있으며, 그 중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급이 높을수록 물리환경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사회심리 스트레스에 영향을 많이 줄을 알 수 있다. 각 요인의 적합성 평가는 22.6%로 설명 할 수 있다[표 7].

IV. 총괄 및 고안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는 정신과적 질환의 이환율, 사회심리적 신체화 장애 등의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지며 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고 조직효과성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방안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심리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병원 기관에 근무하는 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임상에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사회심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표 5. 근무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정도

직무 스트레스	직무 경력	N	M±SD	F	직급	N	M±SD	F	평균일일 근무시간	N	M±SD	F
물리환경	0-11	43	50.39±14.42	2.451	일반직	180	53.89±13.82	17.604**	≤8	126	49.82±15.63	6.591*
	12-35	57	56.14±13.18									
	36-71	56	52.18±15.12		관리직	39	43.30±16.28		9≤	93	54.96±13.14	
	72≤	63	49.21±15.68									
직무요구	0-11	43	56.30±11.80	1.268	일반직	180	58.87±11.79	.278	≤8	126	55.99±12.04	14.200**
	12-35	57	58.41±11.59									
	36-71	56	58.11±12.75		관리직	39	57.69±15.87		9≤	93	62.28±12.45	
	72≤	63	60.98±13.66									
직무자율	0-11	43	56.12±12.28	7.403**	일반직	180	53.81±10.92	13.426**	≤8	126	51.38±10.57	2.579
	12-35	57	54.27±8.40									
	36-71	56	54.17±11.09		관리직	39	46.32±14.26		9≤	93	53.98±13.41	
	72≤	63	46.88±13.28									
관계갈등	0-11	43	24.61±13.73	6.946**	일반직	180	30.93±12.72	2.592	≤8	126	32.61±12.38	1.838
	12-35	57	32.31±11.59									
	36-71	56	31.40±10.89		관리직	39	34.62±14.12		9≤	93	30.20±13.79	
	72≤	63	35.85±13.77									
직무 불안정	0-11	43	38.50±9.50	1.778	일반직	180	41.73±12.16	.019	≤8	126	41.01±12.86	1.234
	12-35	57	41.13±11.40									
	36-71	56	42.96±14.54		관리직	39	42.02±11.60		9≤	93	42.83±10.79	
	72≤	63	43.56±11.43									
조직체계	0-11	43	38.87±6.89	11.744*	일반직	180	49.44±13.14	1.393	≤8	126	49.09±12.90	.036
	12-35	57	50.79±12.05									
	36-71	56	52.64±13.30		관리직	39	46.64±14.79		9≤	93	48.74±14.24	
	72≤	63	50.87±15.05									
보상 부적절	0-11	43	46.51±10.07	3.828*	일반직	180	52.28±12.78	9.293**	≤8	126	50.35±13.96	.714
	12-35	57	52.83±12.78									
	36-71	56	54.66±15.01		관리직	39	45.16±15.20		9≤	93	51.91±12.83	
	72≤	63	49.21±13.82									
직장문화	0-11	43	37.21±10.81	2.942*	일반직	180	42.27±13.84	1.271	≤8	126	43.19±15.90	.184
	12-35	57	42.40±13.57									
	36-71	56	44.35±15.25		관리직	39	45.30±20.48		9≤	93	42.29±14.34	
	72≤	63	45.63±18.20									

*p<0.05, **p<0.01

표 6. 직무스트레스의 각 요인과 사회심리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물리환경	.248**(0.000)
직무요구	.225**(0.001)
직무자율	.209**(0.002)
관계갈등	.093(0.168)
직무불안정	.227**(0.001)
조직체계	.124(0.067)
보상부적절	.411**(0.000)
직장문화	.194**(0.004)

**p<0.01

표 7. 연구대상자의 사회심리 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B	SE	β	t	p
Constant	.767	.293		2.618	.000
최종학력	7.256	.092	.053	.789	.431
직무경력	-7.258	.039	-.159	-1.870	.063
직급	.213	.104	.163	2.055	.041
물리환경	4.904	.002	.145	1.988	.048
직무요구	4.535	.003	.114	1.606	.110
직무자율	3.639	.003	.086	1.260	.209
관계갈등	7.924	.003	.021	.305	.760
직무불안정	6.194	.003	.149	2.289	.023
조직체계	-7.242	.003	-.194	-2.310	.022
보상부적절	1.418	.003	.381	4.791	.000
직장문화	8.133	.002	.025	.339	.735

F=5.506***, R²=0.226

이 연구의 치과위생사 직무스트레스의 총점은 47.41점으로 기존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41.4점, 미용업종사자 42.5점보다는 높았다[12][13]. 정 등[14]의 연구에서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고, 한국 표준 직업분류에 따른 스트레스 평균 49.05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9]. 직무스트레스 중에서도 물리환경과 직무요구, 직장문화에 대한 부분이 직무스트레스를 높이는 항목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물리환경, 직무자율, 보상부적절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아 윤 등[15]과 이 등[2]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갈등부분에서는 높았으나 근무경험이 많으므로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월수입이 낮을수록 직무경력이 짧을수록 직급이 전문직 보다는 일반직 일수록 직무자율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학력이 낮을수록 물리환경, 직무자율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유의하였는데 다른 선행 연구의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직무경력이 길수록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감소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2]. 이미숙[16]의 결과에서도 학력이 낮을수록, 근무년수가 짧고, 직위가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월수입, 학력, 결혼상태, 직무경력, 직급 모두 연령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심리 스트레스 평균은 23.05점이었다. 그 중 72명(32.9%)의 치과위생사가 27점 이상의 사회심리 스트레스 고위험군이었으며, 143명(65.3%)이 잠재적 스트레스군 이었고, 4명(1.8%)만이 건강군에 해당하였다. 이는 윤 등[15]의 결과와 비교적 일치하였으나 본 연구 대상 치과위생사의 사회심리 스트레스가 좀 더 위험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일반적 특성 및 근무환경에 따른 사회심리 스트레스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어서 윤 등[15]의 직위가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위험군이 감소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직무스트레스의 각 요인과 사회심리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에서는 비교적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노 등[17]의 결과에서도 간병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는 강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고, 직무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였다. 사회심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업무내용과 관련된 것보다는 조직적 요인으로 작용되는 직무불안정, 조직체계와 보상부적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경렬[18]의 직무스트레스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결정하는데 있어 보상부적절과 직장문화 중 보상부적절면에서는 일치하였으나 직장문화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연구대상자가 여자들만 구성된 집단이라 근무외의 강압적인 회식문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보상면에서는 다양한 보상의 형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직무스트레스의 요인들을 개선한다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중에서도 사회심리 스트레스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물리환경과 직무불안정, 조직체계의 변화 등이 사회심리 스트레스와 가장 밀접한 관계임을 알고 이를 조정,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표본 선정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사회심리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 이외에 직무외적 스트레스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10년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일부 지역에 근무처가 치과병원으로 등록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근무특성, 직무스트레스, 사회심리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응답자 230명 중 내용이 누락된 11명을 제외한 최종 219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부지역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총점은 47.41 ± 7.46 이었고, 물리환경 52.01 ± 14.82 , 직무요구 58.66 ± 12.58 , 직장문화 42.81 ± 15.22 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여자 기본형(50%) 값보다 높았다.

2. 연구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평균은 23.05 ±7.49점 이었다. 27점 이상 고위험군 스트레스군은 32.9%, 9-26점의 잠재적 스트레스군은 65.3%, 8점 이하의 건강군은 1.8%이었다.
3. 연령이 낮을수록 물리환경, 직무자율, 보상부적절에 대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수입이 낮을수록 직무자율에 대한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물리환경, 직무자율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혼 일수록 물리환경, 직무자율, 보상부적절에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보였고, 관계갈등에서는 기혼이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다($p < 0.05$, $p < 0.01$).
4. 직무경력기간이 짧을수록 직무자율 스트레스는 높았고,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는 낮았으며, 관리직보다 일반직 치과위생사가 물리환경, 직무자율, 보상부적절의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일일 평균근무시간이 9시간 이상일수록 물리환경, 직무요구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았다($p < 0.05$, $p < 0.01$).
5.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직무불안정,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심리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p < 0.01$).
6.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급이 높을수록 물리환경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사회심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적합성 평가는 22.6%로 설명 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의 요인들을 개선한다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치과 의료기관에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치과의료 생산성 향상에 무엇보다 인적관리가 중요하므로 치과 경영자 측은 직원과 함께 직무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구체적인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치과위생사들은 자신의 직무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정신 건강을 위한 꾸준한 자기개발과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 [1] P. A. Thoits,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pp.53-791, 1995.
- [2] 이현옥, 주은주, 김영임, "J지역 치위생사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 분석", *한국치위생과학회지*, 제7권, 제2호, pp.65-72, 2007.
- [3] 박은주,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4] NIOSH, "Stress at work," America, 1999.
- [5] 오혜승,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가 근로생활의 질(QWL)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6] S. Stansfeld, B. Candy, "Psychosocial work environment and mental health-ameta-analytic review," *Scand J Work Environ Health*, Vol.6, special issue, pp.442-462, 2006.
- [7] 장세진, 고상백, 강병근, 차봉석, 박종구, 현숙정, 박준호, 김성아, 강동목, 장성실, 이경재, 하은희, 하미나, 우종민, 조정진, 김형수, 박정선, "우리나라 직장인 스트레스의 역학적 특성", *예방의학회지*, 제38권, 제1호, pp.25-37, 2005.
- [8] S. H. Park, K. B. Min, S. J. Chang, H. C. Kim, J. Y. Min, "Job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employees:the effects of culture on work,"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Vol.82, pp.397-405, 2009.
- [9] 장세진,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의 측정도구 개발 및 표준화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용역보고서*, 2004.
- [10] D. P. Goldberg and V. F. Hillier, "A scaled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Psychol Med*, Vol.9, pp.134-145, 1979.
- [11] 고종욱, 염영희,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 *대한간호학회지*, 제33권, 제2호, pp.256-274,

2003.

- [12] 유정민, “정보건강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3] 오선영, “미용업종사자들의 업무수행 관련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직무스트레스 부하 관련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14] 정용모, 장효강, “부산지역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5호, pp.241-251, 2010.
- [15] 윤성욱, 홍영호, “일부 지역의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대한치과위생학회지, 제12권, 제2호, pp.137-147, 2010.
- [16] 이미숙, “보건관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요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17] 노효련, 김성중, 이문환, “간병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1호, pp.297-308, 2010.
- [18] 유경열, “젊은 남녀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관련성”,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 지 화(Ji-Hwa Kim)

정회원



- 2007년 8월 :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보건학 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포항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관심분야> : 예방치과학, 치위생

저 자 소 개

이 정 화(Jung-Hwa Lee)

정회원



- 2010년 8월 : 영남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 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포항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관심분야> : 공중구강보건, 치위생